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중기 해외시장 개척 성과

전북대·광주대·순천대 등 베트남 호치민 개최 B2C 메가트렌드 박람회 참여 웰푸드연구소 모회사 '제이웰푸드', 현지 '청년마켓'과 12억 사전 계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B2C 메가트렌드 박람회 개최를 통해 12억원의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기업 해외시장 개척 성과를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22일 열린 박람회에는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을 비롯해 호남권 대학인 광주대와 순천대 등 14개의 창업 유관 기관이 함께 주관, 100여 개의 국내 창업기업의 전시부스를 지원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

식품, 화장품, IT,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약 20여 개의 베트남 유통사 및 현지 바이어가 참가해 기업과의 개별 업무미팅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선정기업인 웰푸드연구소의 모회사 '제이웰푸드'가 현지 '청년마켓'과 12억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주)ONM코리아, (주)쓰리씨랩 등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다수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주)스튜디오, (주)제이케이생명과학 등 전북대 및 희망전복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참여해 베트남 호치민 시내 한인 K-마트, 롯데마트 등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 앞으로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정기적 박람회를 통해 우리 창업기업이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호남권 창업중심대학이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B2C 메가트렌드 박람회 개최를 통해 12억원의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기업 해외시장 개척 성과를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디스플레이챌린지 우수 아이디어 제안

전북대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YD', 공모전서 '우수상'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YD(Display Your Dream)' 학생들이 최근 열린 '2022 디스플레이챌린지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I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전자공학부 학술동아리 DYD는 박주은·김다희·홍진호 학생(학부 2년)이 팀을 이뤄 여름방학 동안 '메타버스와 AR기술을 적용한 재택 AS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지도교수와 상의를 거쳐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리게 됐다.

박주은 학생은 "방학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번 아이디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팀원들과 많은 도움을 준 지도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도를 맡은 이지훈 교수(전자공학부)는 "이번 공모전은 수상 기준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상을 하지 않고, 대학원생들도 입상이 어려운 공모전인데 학부 2학년 학생들이 수상한 것은 남다른 노력의 성과"라며 "Virtual 기반의 비교과 활동 인프라가 널리 갖춰져 작은 동아리방에서도 학생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전자공학부 DYD(Display Your Dream)는 설립 4년째를 맞고 있다. 공대 7호관 지하 003호에 위치해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7일 5층 접견실에서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위촉식은 받은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건축사,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 10명이다.

도교육청,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

변호사·건축사·전직 의원 등 외부전문가 10명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5층 접견실에서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위촉식은 받은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건축사,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 10명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

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교육을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감사관들이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뿐 아니라 실질감사에도 적극 참여해 교육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학교 안전 이해력 향상'

도교육청, 학교관리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공립 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교육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학교관리자(교감, 행정실장)를 위해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박남규 교수를 초빙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사항 이행과 현장의 유·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제작·보급,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확대, 산업안전 소식지 발행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학



전북도교육청이 27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관리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학부모기자단 역량 강화 교육 | 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80여명 대상 30일 오후 '미디어 글쓰기 기초' 강의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27일 저녁 7시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학부모기자단 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일과 23일 진행된 온라인 교육에 이은 3차시 온라인 교육으로, 전주MBC 이충훈 앵커를 강사로 초빙해 '호감 가는 말하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시각으로 지역별 교육 현장의 소식을 발굴해 빠르게 전달하고 홍보함으로써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학부모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

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80명의 기자단을 공개모집하고 지역별 총회를 거쳐 시·군별로 활동 중이다.

각 지역의 학부모기자단은 △학교폭력의 이해·청소년 도박·재난안전 등 주제별 교육계 이슈 탐구 △학제의 교육계 인물 인터뷰·학생 동아리 탐방 등 현장 취재 △소식지 발간 및 SNS 네트워크 활동 △단위학교 소식 및 교육정보 교류·공유 △지역 역사 탐방 및 봉사활동 등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활동 △글쓰기 교육 및 독서 모임 등 역량 강화 모임 △학부

모교육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7시에는 미디어 글쓰기 기초 강의를 주제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최란 강사를 초청해 기사 쓰기의 실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년여 동안 몸조름했던 학부모기자단 활동이 올해 다시 활발하게 재개됐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실현되는 현장 소식을 교육공동체 시각으로 두루 살피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차가해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새뜰유치원 갑질 전 원장 대상 "사과 없이 탄원서에서 피해교사 탓해... 추가 징계를"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새뜰유치원 갑질 전 원장은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갑질 행태로 공분을 산 전주새뜰유치원(공립 단설) 당시 원장이 징계계를 받은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청심사에 제출하겠다고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내용 중 피해교사들에 대한 2차 가해 내용이 들어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원장은 인격모독성 폭언들로 비인격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하며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이로 인해 교사 7명이 정서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았고, 3명은 공황장애로 병가를 내야만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사가 진행됐고, 해당 원장은 징계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부는 교사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압박을 주는 탄원서 조치 행위를 멈추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직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전주새뜰유치원에서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교사들이 탄원서 양식을 입수했다는 것

이들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개원 후 교사들의 직위와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과 책임 의식 결여, 정당한 업무 지시 무시 등을 참아내며 홀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경력교사 2~3명이라도 있었으면... 심지어 조급한 열정을 내려놓았다'라면서 하는 아쉬움으로...라고 서술한 대목이 있다

이에 전북지부는 "사과와 반성으로 도 치유가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탓해 심각한 명예 훼손과 정서적 충격의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전북교육청의 추가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협동·화합... 전주교대, 향학체육대회 개최

2년만에 재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7일 학생들의 협동과 화합을 위한 '2022학년도 향학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체육대회는 매년 가을 축제 형태로 개최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 올해 재개된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체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8월 말부터 축구, 배드민턴, 피구 등 구기종목 예선을 거쳐 체육대회 당일 오전에는 구기종목 준결승과 8자 줄다리기, 애드벌룬 넘기기 등 단체종목 경기를 치르고

오후에는 결승전을 통해 최종 우승 팀을 가렸다.

특히, 페트병 세우기 고리 던지기, 사격 부스 등 상설게임을 통해 체육대회의 재미를 더하고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화합과 단결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승패를 통해 상대팀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포용하는 문화가 조성돼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콘텐츠기업 디지털 일자리 박람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27일 J+아트홀과 예술관 일대에서 콘텐츠 기업 디지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온라인데이터랩, (주)호미, 뱅크 이노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설명회, 현장 면접, 현지직 직무 멘토링,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등 취업 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과 학생의 요구에 맞춰 전북지역 콘텐츠 기업의 채용 정보와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또 현장직과의 1:1 상담도 진행했다.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김민아(스마트 미디어학과 3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취업이 막막했지만, 이번 디지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오늘 습득한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상행 센터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 청년들에게 도내 콘텐츠 기업을 알리고, 현장직과 구직자 간 뜻깊은 취업 연계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우수 인재의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